

- 04 Focus On
- 2022년도 단체교섭
- 08 현장속으로
- 건강관리도 업무편의도 윈스톱으로 OK!
- Special Theme
노동시간 단축과 일의 미래
- 10 아카이브 / 노동시간 단축사
- 12 칼럼 / 실근로시간 단축과 노동자 건강 보호가 우선
- 16 제언 / 노동시간 단축 사회문제 해결의 유력한 수단
- 18 ICT 리포트
- 때로는 잠자코 있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다
- 20 시대공감
- 이태원 참사 그 이후 애도와 책임은 무엇으로 완성되는가
- 22 KTTU 건강백서
- 건강검진 결과표 제대로 읽는 법
- 24 KTTU Welfare
- 2022년 동계 휴양시설 & 생활입소 운영 안내
- 28 여행여지도
- 여수·통영
- 32 KTTU NEWS
- 36 카툰 / 조합원과 함께 이룬 결실, 더 크게 누리고 가꿔가요!
- 38 현장의 목소리 & 퀴즈

발행인 KT노동조합 위원장 최장복
 편집인 KT노동조합 조직처장 김인관
 발행일 2022년 12월 8일(격월간)

발행처 KT노동조합
 1360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정자동 206)
 T 031-727-2840 F 031-727-2815

기획·제작 (주)워크디자인 T 02-332-7961~2

어제를 딛고 내일로 나아갑니다

[안전제일]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
 무겁고 투박한 안전화를 신고
 전국을 누빈 KT의 역군들이 있어
 오늘의 통신 강국이 있습니다.
 시대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가치, 안전.
 물리적 정신적 위협으로부터 조합원을 지키고
 모두가 함께 안전한 일터로 나아가기까지
 수많은 선배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점을 잊지 않고
 오늘도 두벅두벅
 어제를 딛고 내일로 나아갑니다.
 내딛는 걸음걸음
 안전한 공동체를 향한 다짐을 새깁니다.



2022년도 단체교섭 “진통 끝 성과, 일상 속 자긍심 더하는 일터로”

2022년도 단체교섭

2022. 11. 14. 주식회사 케이티 · kt노동조합



2022년도 단체교섭이 두 달 여 만에 마무리됐다. 노동조합과 회사는 지난 9월 2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임금제도 실무소위 7회, 복지제도 실무소위 7회, 본교섭 3회 등 총 17차례 공방을 이어온 끝에 지난 11월 14일(월)에 가합의에 이르렀다. 11월 17일(금) 임시 조합원 총회결과 가협약(안)이 86.2%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노동조합은 11월 18일(금) 분당사옥 17층 회의실에서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단체교섭 정식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교섭은 사측의 임금 1% 인상안 제시 등 불성실한 교섭행태로 난항을 겪었으며 노동조합은 10월 마지막주부터 전국 지부 출근 선전전을 시작으로 11월 9일 중앙상무집행위원회 철야농성, 10일에는 전국 지부장 철야농성 동참 등으로 투쟁 수위를 높여나갔다. 이어 전국의 조합간부들이 소속 지방본부에 모여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여는 등 사측을 압박한 끝에 최종 협약을 이끌어 냈다.



협약 체결에 앞서 최장복 위원장은 먼저 “이번 결과에도 다소 아쉬움이 있으나 많은 조합원의 이해와 성원으로 원만하게 가결될 수 있었다”며 “금번 교섭을 지대한 관심으로 지켜봐 주신 조합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협상 와중에 논쟁과 진통을 겪으면서도 회사의 발전과 조합원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인내와 책임으로 마무리해주신 노사 양측 교섭 위원들께도 고간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이제 단체교섭은 끝났지만 다시 일상 활동으로 돌아가 조합원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의 마음을 한데 모으고 추슬러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일터 만들기에 힘쓰자”고 강조했다. 구현모 대표도 “CEO로서 더 큰 책임감 가지고 회사와 종사원의 동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노동조합은 2022년도 단체교섭이 마무리 됨에 따라 다시 일상활동에 집중, 현장과 조합원을 위한 사업에 매진할 방침이다.

2022년도 단체교섭 결과 요약

1 임금		
구분	내용	지급(시행)일
임금	㉠ 협약임금 3%(정액) 인상 • 직원 1인 평균 연 225만원 인상 (기본급 147만원, 평균 3% 수준)	2022.11.30 (1.1일자 소급)
	㉡ 일시금 500만원 지급(경영성과격려금)	2022.11.30
임금경쟁력 강화	㉢ 신입사원 초임인상 • 신입사원 초임을 단계적 인상 (협약인상 후, 2년간 기본급 22.2% 인상) - 2022년 4,840만원 → 2023년 5,400만원 → 2024년 6,000만원 *연봉기준	2023년
	㉣ 저연차 직원 처우개선 • 대상 : 10년차 이하 대리/사원(2014.1.1 이후 G직 입사자) *舊 A직 포함 - 2023년 연봉 5,800만원 이하 / 2024년 연봉 6,300만원 이하 • 방법 : 임금수준을 반영하여 단계적 인상 (2년간, 기본급 평균 17.2% 인상)	~2024년

2 인사/보수/복무		
구분	내용	지급(시행)일
임금피크 직원사기진작	㉠ 임금피크 적용 대상자 특별승진 시행 • 대상 : 임금피크제를 적용 받는 차장급 이하 직원 • 방법 : 일반직원과 분리하여 임금피크제 직원 별도 그룹으로 승진 심사	2022~24년 직급승진 시 (3년限 적용)
초과근로 운영기준 개선	㉡ 초과근무수당 감액기준 개선 및 PC-OFF제 도입 • 연차휴가 매월 2일씩 균등 분산사용 시 초과근무수당 100% 지급 - 단, 하계기간(7~8월)은 2개월 합산 연차휴가 추가 3일까지 초과근무수당 100% 지급 • 업무시간 외 PC 접속 차단(PC-OFF제) - 2023년 상반기 내 시범운영 후 전면 시행	2023.1.1 2023년 상반기
초과근로 운영기준 개선	㉢ 월1회 금요일무제 도입 • 근로시간 축소없이 월 1회 금요일무 • 금요일무제 도입을 위해 총량자율근무제 기준 근로시간 단위 확대 (1주 40시간 → 4주 160시간)	2023년 상반기

3 복지

구분	내용	지급(시행)일
복지제도 운영개선	㉠ 금융기관 대부이자 지원 강화 • 이자지원 대부규모 2배 확대 : 연 1,000억원 → 연 2,000억원 • 긴급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직원 지원방안 별도 마련	2023.1.1
	㉡ 사택제도 개선 • 비연고지 단신 부임자 사택 : 직접제공 → 임차보조비 지원 • 광역시/수도권 시지역 월 50만원 한도, 그 외 월 30만원 한도 3년간 지원	2023년 상반기
	㉢ 우리사주 취득제도 신설 • 우리사주 상시 취득 정례화 *연 400만원 한도 소득공제 가능 • 운영방식 : 희망자 신청접수 후 신청금액 급여공제	2023년 1월부터
	㉣ 글로벌 연수프로그램 재개 • '19년 노사합의 후 코로나로 중단된 글로벌 연수프로그램을 국내·외 코로나 관련 방역 완화 상황 등 감안하여 운영 재개	2023년 중
사내근로 복지기금	㉤ 사내근로복지기금 710억원 출연	2022년 중



KT우면사옥 환경 개선 & 사내클리닉 현장 방문기 건강관리도 업무편의도 윈스톱으로 OK!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회사는 단순한 업무 공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우리의 일과 삶은 둘로 명확히 나뉘지 않으며 상당부분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개소한 사내클리닉과 회의실, 휴게실, 화장실 등의 리모델링으로

변화된 업무 환경에 보여준 조합원의 높은 만족도는 이를 방증한다.

이에 리모델링된 업무환경과 사내클리닉을 이용하는 우면사옥 조합원을 만나본다.



“회사에 주치의가 있어 든든해요”

오후 2시 15분, 조용한 우면동 사옥 내 사내클리닉 문이 살포시 열린다. 집중력을 한껏 끌어올려 바쁘게 오후 업무를 처리할 시간이지만 황보영 조합원은 오전부터 느껴지던 미열과 두통이 멈추지 않아 불안감에 사내클리닉을 찾았다. 진료실로 들어간 황보영 조합원은 오전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았으며 고현영 전문의에게 증상을 하나씩 설명했다. 체온 측정과 문진 후 가벼운 감기 기운이라며 해열제와 두통약을 처방한 고현영 전문의는 퇴근 후 따뜻한 물로 샤워한 후 무리하지 말고 잠을 꼭 자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제야 한시름을 놓은 듯 황보영 조합원은 편안한 표정을 지으며 사내 클리닉을 나섰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 책상에 앉아 시계를 봤다. 2시 35분이었다. 그는 퇴근 전까지 끝내야 할 업무에 집중력을 쏟아 부었다.

한편 신태영 조합원이 사내클리닉을 찾은 건 건강검진결과 때문이었다. 최근 회사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지만, 알쏭달쏭한 용어와 숫자를 보며 심란했던 것. 고현영 전문의는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당장 약물치료가 시술을 할 필요는 없다고 안심시킨 후 검진 결과의 의미를 차분하게 설명했다. 대신 피해야 할 음식과 필요한 운동 등을 알려주며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조언을 잊지 않았다.

KT가 지난해 광화문 사옥과 우면동 사옥에 문을 연 사내클리닉에 조합원들이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가 상주하는 사내클리닉에서는 1차 의료 기관과 똑같은 의료서비스와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어 업무 공백을 줄이고, 건강검진 결과나 타 병원에서의 소견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주치의처럼 관리해주기 때문이다. 또 사내클리닉에서 전자 의뢰로 연결하면 별도의 진료 의뢰서나 예약 없이 빠르게 상급병원 내원도 가능하다. 현재 광화문 이스트 사옥과 우면 KT연구센터 8월 한 달 이용자 수는 각각 218명, 132명에 이른다.

“카페야? 회의실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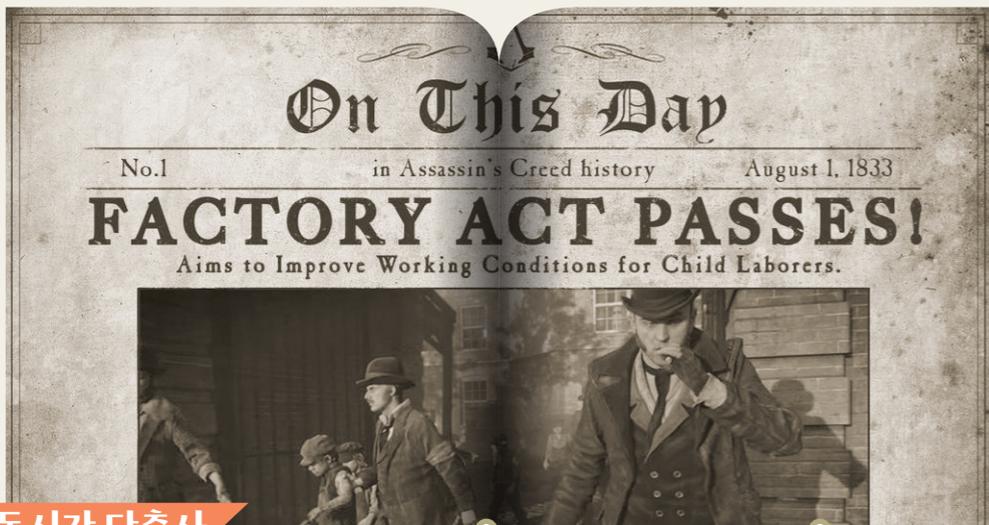
우면사옥의 3층 라운지는 출근 직후 가장 붐비는 장소다. 출근하느라 아침을 놓친 몇몇은 로비에 비치된 시리얼과 우유로 허기를 달래고, 어떤 이들은 아메리카노 아침 집중력을 높이거나 동료들과 가볍게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눈다. 출근 시간이 지나면 라운지 테이블로 직원들이 모여 자유로운 소통으로 회의를 이어간다. 별도의 회의실이 있지만 수평적인 논의와 자유로운 의견 교환, 가벼운 업무 협의는 라운지의 편안한 분위기가 훨씬 적합해 로비를 애용한다. 로비에서 자주 팀원들과 회의를 한다는 기술 경영팀의 노회진 조합원은 “아무래도 편안한 분위기에서 업무 얘기를 해서 협의도 유연하게 이뤄지고, 업무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에 힌트를 얻기도 한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3층 라운지가 편안한 분위기의 소통 공간이라면 4층은 회의에 최적화된 공간이다. 탁 트인 공간에 라운지와 카페를 혼합한 자유로운 테이블 배치는 카페처럼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해 회의뿐 아니라 개인작업을 하기에도 적합하다. 이 외에 회의 방식과 내용, 참석자 수에 따라 회의실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방·폐쇄형 회의실도 갖췄다. 한편 그동안 간담회 등을 통해 조합원 의견을 꾸준히 청취해온 KT노조는 조합원의 업무 특성에 맞춰 갖은 협업과 높은 집중력이 필요한 개인 업무 모두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무 공간을 구성했다. 또 휴게실과 화장실도 리모델링해 조합원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많은 이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꼽는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은 단순히 근무시간 단축이나 일과 삶의 시간적 구분을 뜻하지 않는다. 일과 삶의 적절한 균형은 현재 자신의 일상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느냐에 달렸다.

KT노조의 사내 환경 개선에 조합원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사내 병원에서 진료와 건강 상담을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등을 통해 일하면서도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장복 위원장은 “조합원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폭넓은 사업을 펼쳐갈 것”이라고 밝히며 장기적으로 KT 사옥을 단순히 일하는 공간이 아닌 창의적 아이디어의 산실이자 편안한 공간으로 개선해 조합원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시간 단축사

최초의 공장법에서 주 35시간제까지

1833

영국 공장법 입법
 • 9세 이하 아동노동 전면 금지
 • 9~13세 1일 9시간, 1주 48시간 노동 규정

1848

영국, 성인 남성
 하루 12시간 노동제 도입

1866

국제노동자협회,
 하루 8시간 노동 채택

1866.5.1

미국 노동자들,
 8시간 노동제 시행을
 요구하며 총파업
 (오늘날 메이데이로 기념)

1919

국제노동기구(ILO) 첫 총회에서
 1호 조약으로 '1일 8시간,
 주 48시간 노동제' 채택.
 1차 세계 대전 직후 선진국
 중심으로 주 48시간제 도입

1936

프랑스, 주 5일
 40시간 노동제 채택



“현대 산업의 특성인 급속한 기술 진보의 혜택을 노동자들이 가능한 실질적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능한 모든 범위 내에서 모든 형태의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ILO 제19회 총회에서 제 47호 조약으로 '주 40시간 단축 협약' 채택

1935.6.4

“각하에게 아픈 곳을 알려드리니 고쳐주십시오.
 하루 14시간의 작업을 10~12시간으로 단축하십시오.
 일요일마다 쉬기를 희망합니다. 시다공의 수당을 50% 인상하십시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_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중



1970.11

전태일 분신

1997

일본, 유예사업 없이
 주 40시간 전면 시행

1953.5.

한국 미군정, 근로기준법에서
 1일 8시간 주 48시간 규정

1989

한국,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
 주당 최대 노동시간은
 64시간으로 조정

1999

프랑스, 주 35시간제 시행

2002.2.

주 5일제 입법안 국회 제출

2003.9.

한국, 법정노동시간
 주 40시간 규정.
 (1주를 월~금으로 해석해
 연장근로 12시간에
 휴일근로 16시간으로
 주당 최대 68시간 근무)

2004.7.

한국, 주 5일제 시행
 “7월부터 주 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상사의 눈치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다.
 또 정규직은 다 쉬는 토요일에
 자신들만 나와서 일해야 하는
 비정규직들의 설움도 여전하다”
 _2004년 7월 19일 경향신문 기사 중

2018.7.1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에
 법정 주당 최대 52시간 근무제
 시행



실근로시간 단축과 노동자 건강 보호가 우선

글 / 박귀천(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동시간 유연화를 둘러싸고
꾸준히 노동시간 제도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개편 방향은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의 근로시간제다.
하지만 연간노동시간이 한국에 비해 월등히 적은 유럽의 제도를
개혁모델로 하는 것은 아전인수라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이에 유럽의 근로시간제를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간 유연화의 문제점과 노동시간제 개편 전에
선행되고 보호되어야 할 노동권을 짚어본다.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노동자들은 돈으로 환산된 시간의 지배로부터 최소한의 인간다운 시간과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때로는 목숨까지 바쳐야 했다. 독일의 과학자이자 기자인 울리히 슈나벨에 따르면, 사람들은 흔히 시간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시간은 사회적 관습에 기반을 둔 약속에 불과하고, 어떤 사회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 시간 리듬은 그만큼 더 정확해지고 단위가 촘촘해진다고 한다. 지난 몇 세기 동안 자본주의와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시간을 정교하게 돈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만들어 왔고, 노동자들은 더욱 복잡하고 촘촘하게 정해진 시간의 리듬에 맞춰 삶과 노동을 지배당하게 되었다.

실근로시간 독일 1,332시간 VS 한국 1,908시간

정부는 최근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제도를 참고하여 근로시간제도를 바꾸는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비단 이번뿐 아니라 유럽의 근로시간제도는 과거에도 우리 제도를 변경할 때 주요 참고 사례로 활용되었다. 유럽 국가들의 근로시간제도는 대체적으로 유연화와 개별화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그에 앞서 유의해야 할 중요한 전제는 실근로시간의 수준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평균 1,908시간으로, OECD 국가 중에서는 멕시코(2,124시간)와 코스타리카(1,913시간)에 이어 세 번째의 장시간노동 국가이다. 그나마 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연장근로시간 포함하여 52시간으로 제한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점차적으로 줄어든 수준이 이 정도이다.

연간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의 경우, 1,332시간이고, 덴마크(1,346시간), 영국(1,367시간), 노르웨이(1,369시간), 네덜란드(1,399시간) 등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모두 연간 근로시간이 1,300시간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국 제도를 수입하고자 할 때, 해당 국가와 한국의 실근로시간 차이를 비롯하여 제도의 배경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고, 실근로시간의 단축 없이 무분별하게 근로시간 유연화를 확대하는 경우, 무분별한 장시간 노동을 방치하면서 임금 삭감 효과만 가져오게 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법적 규제와는 별도로 이미 1990년대부터 여러 산별 협약을 통해 주간 근로시간을 35시간~38시간으로 정한 독일의 산별노조들은 최근에도 단체협약 상 주간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독일 등 유럽국가에서는 노동자의 ‘시간주권(time sovereignty)’ 확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자의 시간주권은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포함한 삶의 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노동 4.0은 ‘근로시간의 유연화와 노동자의 시간주권 내지 자기결정권 강화’에 특히 주목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장시간 노동국가인 한국에서 시간주권 보장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희석되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리고 노동의 디지털화가 근로시간에 대한 노동자의 자기결정권 확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과 휴식의 경계, 작업과 사생활의 경계가 흐려져 실근로시간이 길어진다면 이는 결국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게 될 수 있다는 점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온전한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for decent pay) 확보가 필요하다.

노동시간 개편에 앞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

유럽 국가들의 근로시간 제도를 참고해서 우리 제도를 바꾸고자 한다면 유럽연합의 근로시간에 관한 지침에 따라 여러 유럽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두고 있는 제도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모든 노동자에게 최소 휴식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유럽연합의 지침에서는 24시간당 최소 연속 11시간의 휴식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1일 근로시간의 상한이 원칙적으로 13시간이라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여러 국가가 법으로 명문화하고 있는 최소휴식제도는 하루의 노동이 종료된 후에 일정 시간 동안의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노동자 건강보호와 가정생활 등 사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한국의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특례업종에 대해서만 최소휴식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그 밖의 일반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하루의 노동이 종료된 이후 다음날의 노동이 개시될 때까지 최소한 몇 시간 동안은 노동을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1일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관련 허용 한도만 넘지 않는다면 결국 근로 종료시각과 다음 날의 근로 개시시각 사이의 간격이 대단히 짧을 수도 있고, 어느 날의 근로가 다음 날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소휴식시간과 같은 제도의 전면적 도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야간근로’와 ‘야간근로자’의 개념을 법에 별도로 규정하여 매일 일정 시간 이상 야간노동을 하는 야간노동자에 대한 별도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여러 연구를 통해 야간노동이 노동자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준다는 점이 알려져 있고, 최근 노동자 사망과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SPC 계열사 산재사건의 배경에도 결국 장시간의 야간노동이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렇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야간근로에 대해 할증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만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야간작업을 유해인자로 인식하여 야간근로자를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즉, 신규입사자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야간작업 배치 시에는 배정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 후 6개월 이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재직자는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이후 12개월 주기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 유럽연합의 근로시간에 관한 지침에서는 야간노동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야간근로 시간은 자정과 오전 5시 사이를 포함하여 연속 7시간 이상의 시간을 의미하고, ‘야간근로자’란 야간근로시간대에 정규 근로시간이 하루 3시간 이상이 편성되어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야간근로자는 야간근로 배치 전에 무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야간근로로 인한 건강문제로 고통을 받을 때에는 언제든지 주간근무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하며, 야간작업의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 조치를 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노동법전에서는 야간근로의 이용은 예외적이어야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라는 요청을 고려해야 하며, 야간근로는 사회적 이익을 갖는 업무나 사업의 계속성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에 의하여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다.

병원, 요양시설 등과 같이 소속 노동자들이 불가피하게 야간노동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좀 더 실질적인 법적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장시간 야간노동으로 인한 과로사와 사고사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택배회사나 제빵회사 같은 곳에서는 꼭 장시간의 야간노동이 필수불가결한 것인지가 검토되어야 하고, 최소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노동자 건강보호와 사고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유럽노조의 역할과 성과

끝으로, 유럽에서 근로시간 규제를 위한 노조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덴마크에서는 오랫동안 근로시간 규제에 관한 법이 없었지만 단체협약을 통해 주 37시간 노동이 정착되었다. 다만, 유럽연합 지침에 따라 근로시간법제가 필요하다는 압박으로 인해 2002년에 비로소 근로시간법이 제정되었는데, 민간부문이건 공공부문이건 단체협약에 의해 이미 근로시간이 규율되고 있기 때문에 법의 역할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독일의 경우에도 단체협약 및 사업장협정 등을 통한 공동결정 등 집단적 규율체계의 배경 하에서 구체적인 근로시간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독일 근로시간법은 근로시간 규율을 위해 매우 상세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일정한 조건 하에서 단체협약에서 법과 달리 정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즉, 법정 근로시간제도의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라도 노동조합 차원에서 논의되어 결정된 수준 정도를 허용하겠다는 취지가 보인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과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유럽 노조들의 역할과 성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간 단축 사회문제 해결의 유력한 수단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린 노동자들의 기나긴 싸움의 성과이자 노동운동 역사다. 1950년 미국 노동자들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990시간이었는데 2000년 1,832시간으로 낮춰졌고 2020년에는 다시 1,767시간으로 줄었다. 독일과 프랑스도 1950년 무려 2,428시간, 2,351시간에서 2020년에는 1,332시간과 1,402시간으로 각각 줄었다. 영국도 연평균 노동시간이 1950년 2,184시간에서 2000년 1,566시간으로 줄었고 2020년에는 1,367시간으로 줄었다. 이렇게 짧아진 노동시간은 그 자체로 중대한 진보다.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아직도 1,908시간에 이른다. OECD 국가 중 한국보다 노동시간이 긴 나라는 멕시코(2,134시간)가 유일하다.

노동시간 단축의 1석 3조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는 단지 장시간 노동의 개선만을 뜻하지 않는다. 노동시간 단축은 일과 삶의 균형, 일자리 나누기, 소득재분배,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하고 복합적 의미를 지닌 정책 수단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기존 의미를 더해 생태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과로하는 미국인>, <쇼핑하기 위해 태어났다>, <제3의 경제학> 등을 쓴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줄리엣 쇼어는 노동시간 단축이 '3중 배당(triple dividend)', 쉽게 말해서 1석 3조의 효과와 필요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노동시간 단축의 첫 번째 효용은 실업의 감소와 일자리 창출이다. 그녀가 역사적으로 살펴본 바 노동시장의 균형은 언제나 노동일의 단축을 통해 이루어졌다.

1870년과 1970년 사이에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대략 절반으로 줄었으며, 이제는 현재와 미래의 '잉여' 노동을 빨아들여서 GDP를 키우는 성장은 현실적이지도 않다. 물론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과 나누기로 연결되려면 각국의 조건과 제도적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더 많이 일하면 더 많이 오염된다

노동시간 단축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라는 두 번째 효용을 가져온다. 쇼어는 더 많이 일하는 나라가 더 많이 오염시킨다고 간단히, 그러나 정확하게 지적한다. 이는 더 큰 생산 규모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간에 쫓기는 가계와 사회가 탄소배출을 더 많이 하는 방식으로 유지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빠른 삶과 많은 노동을 도와주는 교통수단, 일회용품, 배달식품, 각종 가전제품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소비 총량 감소 없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부문별 할당 계획을 제출하는 것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실제로 스웨덴 연구진은 노동시간이 1% 단축되면 가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최대 0.8% 감소한다는 걸 증명했다. 스웨덴 가정의 시간 사용과 소비 형태를 분석해 소득과 여가의 변화를 살펴보니, 작업시간이 1% 감소하면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각각 약 0.7%, 0.8% 감소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미국 보스턴대학 연구진은 2007~2013년 미국 50개 주의 탄소배출과 노동시간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 긴 노동시간은 화석연료 배출은 물론 화석연료의 대량 소비와 강한 생태발자국을 남긴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연구는 노동시간 단축이 탄소배출량 감소에 기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 나누기 정책과 결합하면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음을 보여줬다. 영국 환경단체 '플랫팜 런던'도 주 4일 근무제로 전환하면 영국이 2025년까지 연간 1억2,700만톤(t)의 탄소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기어변속을 고민할 때

노동시간 단축의 세 번째 효용은 시간 자체다. 쇼어는 자발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동시에 임금과 연계된 활동과 수입 수준을 줄이는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다운쉬프터(downshifter)' 운동이 성장하고 있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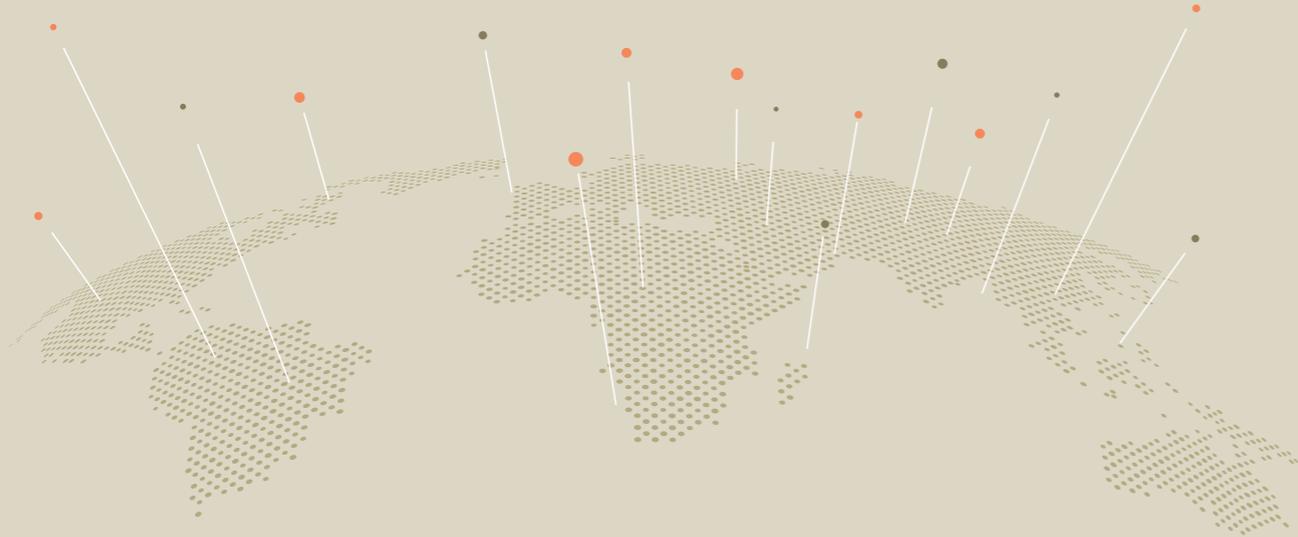
다운쉬프터는 자동차를 낮은 기어로 변속하듯 생활을 더 느리고 소박하게 바꾼다는 뜻이다. 이들은 수입 대신 확보된 시간으로 더 좋은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찾고 창조적이고 의미 있는 사회 활동 비중을 늘리고자 한다. 처음 접하는 주장도 아니고 우리 주변에 이미 많은 이들이 꿈꾸고 또 실제로 시도하고 있는 삶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반론이 따라오기 쉽다. 이러한 주장이 가능하려면 국민 전체의 소득이 훨씬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되물어보자. 얼마나 GDP가 성장하고 가계 소득이 늘면 다운쉬프터를 시작할 만큼 충분히 여유 있다고 할 것인가? 늘어난 소득만큼 더 많은 소비와 투자를 하게 되는 굴레를 개별 가구는 사회 전체든 언제야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세계적인 장시간 노동국가인 한국에서 이런 주장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은가?

이처럼 노동시간 단축은 이제 단순히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넘어 '더 나은 사회를 향한 모색' 차원에서 검토되고 논의될 필요가 있다. 투쟁의 역사에서 진보의 역사로 다시 한 페이지를 넘길 때가 됐다.

때로는 잠자코 있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다

글 / 정동훈(광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유튜버 참전으로 ‘핫’해진 해묵은 논쟁

유튜브 코리아는 9월부터 ‘망 사용료 법안의 의미와 영향’이라는 제목과 망 중립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영상으로 유튜브에서 캠페인 중이다. 유튜브가 레거시 미디어에 비해 핫한 동영상상이 넘치는 사이트라는 생각 때문인지, 해시태그를 단 ‘#인터넷수호캠페인’이란 표현이 마치 쌍팔년도 국가 안보를 외치는 문구처럼 들린다.

망 사용료 문제는 지난 수십 년간 잊혀질 만하면 소환되는 산업계와 학계의 첨예한 이슈였다. 다만 이번에 공론화된 망 사용료 이슈는 두 가지 점에서 유별나게 보이는데, 첫째 정치권에서 적극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점과 둘째 소위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유튜버들이 대거 참전해서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이다. 그전까지만 해도 ISP와 CP 간의 갈등을 경제학과 인터넷, 미디어 정책 전공자들이 학문적 입장에서 논쟁하고 최선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왔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로 내심 그 누구도 해결책이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유튜브와 메타, 넷플릭스와 같은 미국 기반 빅테크 기업과 국내 ISP의 대립 전선이라서 자칫 잘못하다가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 확산할 여지도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망 사용료 이슈는 단적으로 어느 한 주장이 옳다고 판단하기 힘들 정도로 당위론적 원칙(normative approach)과 행위론적 원칙(behavioral approach)이 첨예하게 부딪치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립 전선이 너무나 뚜렷하기에 어느 한쪽 손을 드는 것은 특혜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경제나 정책, 법률 전문가들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네트워크 슬라이싱(Network Slicing), 넷플릭스의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 등 기술적인 개념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려 하는데, 사실 이들이 정말 이러한 기술을 알고 말하는지 늘 의구심이 든다. 게다가 단순하게 말해서 ISP와 CP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결국 유튜브와 메타, 넷플릭스와 같은 미국 기반 빅테크 기업과 국내 ISP의 대립 전선이라서 자칫 잘못하다가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 확산할 여지도 있다.

망 사용료는 전 세계의 이슈

산업 관련 이슈가 무엇 하나 그러지 않은 게 있겠느냐는, 결국 망 사용료 문제도 누가 이익을 취하느냐의 문제이다. ISP는 구글, 메타, 넷플릭스,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여섯 개 글로벌 CP의 글로벌 데이터 트래픽 점유율이 60%에 가깝다는 현실적 상황을 바탕으로 망 사용료를 통해 CP들이 채우는 잇속을 나누어 가지려는 심산(행위론적 원칙)이고 CP는 망 중립성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통해 가당치 않은 주장이라고, 논의 자체가 있어선 안 될 일(당위론적 원칙)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분연히 떨쳐 일어섰다. 우리나라 ISP 기업의 이익을 해하는, 무임승차하는 해외 기업의 횡포를 막을 수 없다는 ‘정의’의 발로(發露)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업 간의 갈등에 국회가 법안을 통과하려는 의도를 보인 것이다. 유튜브는 말 그대로 ‘앗 뜨거워!’였던 것 같다. 그동안 남의 일처럼 여겨왔던 한국에서의 망 중립성 이슈가 넷플릭스의 SK브로드밴드 소송 패소와 국회의 법안 처리를 위협으로 느꼈는지 연일 유튜브에서 영상 광고를 내보내고, 유튜버와 함께 적극적인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이제까지 구글이 한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캠페인을 한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의지이다. 어쨌든,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한쪽 편이 손을 들어주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굳이 총대를 메며
법안을 통과시켜 세계의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점이다.
국내 통신사의 이익을 위해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는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망 사용료 이슈는 현재 전 세계 ISP가 동일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유럽연합에서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정부가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게 망 투자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법안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집행위에서는 초안을 마련 중이다. 미국에서도 공화당과 일부 주에서 빅테크의 망 투자 재정 기여를 촉구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굳이 총대를 메며 법안을 통과시켜 세계의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점이다. 국내 통신사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유튜브 코리아의 망 중립성에 관한 영상 캠페인에는 댓글 사용이 중지됐다. “우리나라에서 돈은 어마어마하게 벌어가면서 사용료는 왜 안내냐”는 댓글이 넘쳐서 언젠가부터 댓글 사용을 중지시킨 것이다. ‘댓글이 사용 중지되었습니다’라는 문구 위에 있는 ‘#인터넷수호캠페인’ 해시태그가 서로 대비되는 모습에서 ISP와 CP의 갈등이 ‘국민 없는 정치권’과 ‘업계 로비에 의견이 갈리는 언론계’, ‘사용자 없는 사업자’ 간의 치열한 돈 싸움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의 아주 시니컬한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해본다.

이태원 참사 그 이후 애도와 책임은 무엇으로 완성되는가

2023년 10월 29일, 서울 한복판에서 끔찍한 참사가 일어난 뒤로부터 한 달이 흘렀다.
단일 사고 인명피해로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 규모의 사고다.
건물 붕괴나 교통수단 내에서가 아니라 그저 길에 서 있던 행인들이 당한 사고로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다. 그사이 밝혀진 것은 전혀 없다.
158명의 죽음만이 실존할 뿐, 참사의 원인도, 진정한 애도도, 책임자도 사과도 없다.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책임회피의 말 잔치뿐이다.



책임회피의 말 잔치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 작년보다는 (인파가) 많을 거라고 예측했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많을 거라곤...”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뭘가요(참사 관련 외신기자 간담회 중 통역관련 문제가 있었다는 공지를 들은 뒤 웃으며)” (한덕수 국무총리).

사람들이 책임의 라인에 기대한 것은 ‘어떻게 했어야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인력과 자원을 어디에 배치할지 판단하고 실행할 권한이 있는 이들이 제대로 된 답을 가져야, 이 다음이 다를 것이었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빠르게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고, 다른 곳으로 전가하기 시작했다.

국가 애도기간이 신속하게 선포되었지만, 거기에는 애도의 대상이 없었다. 희생자의 영정도, 이름도 없는 합동 분향소. ‘근조’ 메시지조차 없이 배달된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조화. ‘애도의 시간이니 정쟁을 멈추고 애도에 집중하라’는 메시지에서 국민들은 어렵지 않게 2014년의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떠올렸다.

개인적인 애도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모든 죽음은 사회적이기 때문이다. 아이가 통학버스에 치여 죽었어도, MT에서 천장이 무너져 죽었어도, 밤늦은 길에서 폭행당해 죽었어도, 집에서 학대로 죽었어도. 어느 하나 사회구조와 무관한 죽음이 없고, 사회적 의미를 갖지 않는 죽음은 없으며, 그리하여 사회가 책임에서 온전히 자유로운 죽음이란 없다.

진상규명은 사회적 합의의 과정

우여곡절 끝에 한 달의 시간이 흐르고서야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참사가 나면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조직의 대응 실패인지, 정치 지도자의 실패인지, 심지어 시민의 안전 의식 실패인지까지도. 논쟁을 하는 건 당연한 측면이 있다. 중요한 건 무엇이 실패인지 합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간 수많은 참사의 반복 속에서 우리 사회는 합의에 실패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굳이 ‘합의’라고 표현하는 것은 복잡하고 거대한 재난 참사에 아주 간단한 원인이 있어서 그것만 찾으면 진실을 밝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보고서 집필에 두 차례 참여한 카이스트 전치형 교수는 “훨씬 더 복잡한 데 실패가 있었고, 그렇다면 전문가든 시민이든 참여해서 무엇이 실패했는가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하고 그것들 사이에 연결고리를 밝히고 일종의 서사를 사회적으로 생성한 다음 그것을 받아들이고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참사는 언제나 그 이후가 중요하다

그렇다. 참사는 언제나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 재난도 반복되지만, 재난에 대해 국가 책임을 묻는 흐름도 반복된다. 많은 동료시민들을 잃은 데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과제 앞에, 어려움이 없지 않다. 우선 ‘정치적 책임’을 걸치려용 사과로만 끝낸 선례가 적지 않다. 위기 모면용 걸치려나 말로만 그치지 않는, 시민의 안전이 우선순위로 올라오는 사회로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약속과 구체적 계획이 포함된 사과가 필요하다.

데자뷔 같은 현실을 지금부터는 다르게 써나갈 방안을 고민하자.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마지막 시간을 복원하고,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초석으로 삼자. 국가의 책임은 진정한 사과와 숨김없는 원인 규명과 더불어, 축제의 자유와 양립하는 안전할 권리가 보장되는 나라로 변할 때 완성된다고 말하자. 우리의 애도가 오랜 기간 쌓여온 잘못을 정정하는 근본적 변화로 연결되도록 힘을 모을 때다.

‘압사사고’ 대책 관련 주요 해외 사례

 **미국**

- 2021년 텍사스주 압사사고 (9명 사망)로 사유지 압사 대책 마련
- 500명 이상 야외 음악행사에 대해 안전계획 제출·허가 조례안 추진

 **영국**

- 1989년 영국 힐스보로 참사 (94명 사망)로 축구관중법 제정
- 축구장 내 관중의 입장 허가·통제하는 구단에 면허제도 실시
- 관중에 대한 안전지도·기준 강화, 처벌 조항 포함

 **일본**

- 2001년 효고현 아카시 불꽃놀이 참사(11명 사망)로 혼잡경비 강화
-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 협업해 자체 안전 계획

 **중국**

- 2014년 상하이 천이광장 참사(36명 사망)로 공공장소 안전관리법 조례 제정
- 관광지·공원 등 공공장소 군집 시 현장 관측 강화
- 관계기관 유기적으로 정보공유 체계 마련

 **사우디아라비아**

- 메카 성지순례 기간마다 압사사고 (1990년 1,426명 사망) 반복
- 성지순례 허용시간 제한, GPS칩 내장 전자팔찌 착용

 **홍콩**

- 1993년 란과이퐁 새해행사 압사사고 (21명 사망)로 인파 안전대책 마련
- 일방통행 등 경찰 현장관리 매뉴얼 운영

알쏭달쏭 건강검진 결과표 제대로 읽는 법!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지만, 막상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으면 전문용어와 알쏭달쏭한 표현 때문에 정작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건강정보를 익혀 현재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확인해 보자.

성인병

총콜레스테롤 고밀도(HDL)·저밀도(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포함하는 수치로 **200mg/dL 미만이면 양호, 200~239mg/dL면 주의, 240mg/dL 이상은 이상지질혈증**으로 볼 수 있다.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200~239mg/dL 라 해도 LDL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많다면 이상지질혈증으로 진단한다.

고밀도(HDL)콜레스테롤 혈액 속 나쁜 지방 성분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고밀도콜레스테롤은 60mg/dL** 이상이 정상이며 수치가 높을수록 좋다. 40~60mg/dL는 보통, 40mg/dL 미만이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한다.

저밀도(LDL)콜레스테롤 정상 수치인 **130mg/dL**보다 높으면 혈관벽에 쌓여 혈액을 끈적하게 해 혈전을 형성한다. 수치가 높을수록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의 발생 위험을 커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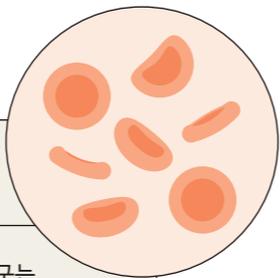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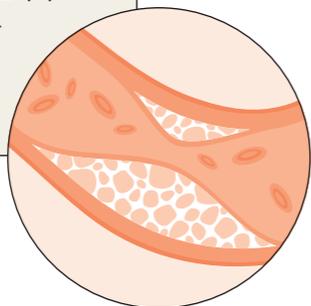
중성지방 과도한 음식 섭취로 소모되지 않은 칼로리가 간과 장에 흡수돼 생기는 지방이다. **15mg/dL 미만이면 정상, 150~199mg/dL이면 주의, 200mg/dL 이상이면 치료**가 필요하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인데, 중성지방 수치만 높다면 젊은 나이에 관상동맥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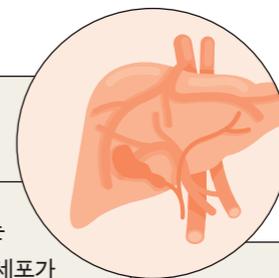
백혈구 면역력과 관련이 깊은 백혈구는 15세 이상은 **혈액 1μm 당 4,000~1만 개**가 정상 범위다. 또한 심한 운동이나 식사 후, 목욕, 스트레스로 인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3,000개/μL 이하라면 병원체에 감염되기 쉬운 상태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결과표에 백혈구 중 차지하는 비율로 표기할 때 20~48%면 정상이다.

혈색소 혈색소(Hb)는 혈액 속 산소를 몸 전체에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남자 13~16g/dL, 여자 12~15g/dL**가 정상 수치다. 혈색소가 정상보다 적으면 빈혈, 백혈병을 의심할 수 있다. 또 흡연, 탈수로 인해 정상 수치보다 증가할 수 있다. 혈색소 수치가 정상에서 크게 벗어난다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혈소판 혈소판(PLT)은 손상된 혈관의 지혈을 담당한다. 정상 수치는 **혈액 1mm³ 속에 30~50만 개**로 수치가 낮으면 멍이 잘 들고 피부, 점막, 장기에 출혈성 질환이 생기기 쉽다.



간



AST, ALT 간 건강의 척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주로 간에 존재하는 효소다. 간세포가 파괴되면 AST, ALT가 혈액으로 흘러나와 혈중 수치를 변동시키는데 **정상은 0~32U/L이며, AST 51 이상, ALT 46 이상이면 간세포가 파괴되거나 손상**되었다는 의미다. 특히 ALT는 간에만 존재하기에 간 건강을 파악하려면 ALT 수치 변화를 유의해서 봐야 한다.

빌리루빈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의 황색 색소로 농도가 높아지면 눈과 피부가 황색이 되는 황달 증상이 나타난다. 혈중 빌리루빈 정상은 **0.2~1.0mg/dL**이며 간에 장애가 생기면 수치가 올라가고, 급성간염, 간경화, 담석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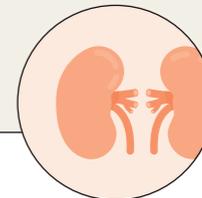
감마GT(GGT) 간, 신장, 췌장, 비장, 심장, 뇌에 분포하는 효소 중 하나로 질병을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남성은 11~63IU/L, 여성은 8~35IU/L** 이내가 정상 수치이며, 정상보다 높으면 비만, 당뇨, 동맥경화증, 지방간, 알코올성 간질환 등을 의심할 수 있다. 간질환이 아니더라도 음주나 특정 약물 복용으로 상승할 수 있다.

신장

요단백 수치가 아닌 '음성'과 '양성'으로 표기한다. '양성'은 **소변에 단백질이 검출**했다는 뜻으로 신장 기능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혈청크레아티닌 체내에서 에너지로 사용된 단백질의 노폐물이다. 신장이 손상되면 크레아티닌을 걸러내지 못해 수치가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남성 0.6~1.1mg/dL, 여성 0.4~0.8mg/dL**가 정상 범위지만 노화, 공복, 수분, 영양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수치 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요산 소변을 통해 배출되는 단백질 노폐물로, 수치가 높으면 신장 기능이 저하돼 요산이 체내 축적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성 8mg/dL, 여성 7mg/dL**이 정상 수치이다.



건강검진 항목별 정상 수치

구분	검사항목	정상 수치
혈액	백혈구	혈액 1μm 당 4,000~1만 개(15세 이상)
	혈색소	남자 13~16g/dL, 여자 12~15g/dL
	혈소판	혈액 1mm ³ 당 30~50만 개
콜레스테롤	총콜레스테롤	200mg/dL 미만
	고밀도(HDL)콜레스테롤	60mg/dL 이상
	저밀도(LDL)콜레스테롤	130mg/dL
	중성지방	150mg/dL 미만
	간	AST, ALT
간	빌리루빈	0.2~1.0mg/dL
	감마GT(GGT)	남성 11~63IU/L, 여성 8~35IU/L 이내
	신장	요단백
신장	혈청크레아티닌	남성 0.6~1.1mg/dL, 여성 0.4~0.8mg/dL
	요산	남성 8mg/dL, 여성 7mg/d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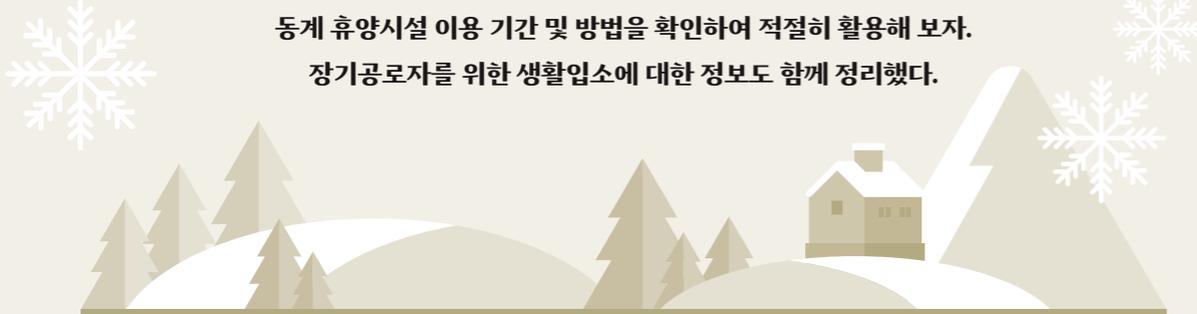
2022년 동계 휴양시설 & 생활입소 운영 안내

우리회사는 직원과 가족의 재충전 및 심신건강을 위해 전 직원이 휴양시설을
연중 최소 1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1인 1휴양시설 이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당해년도 휴양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직원에게 우선승인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니

동계 휴양시설 이용 기간 및 방법을 확인하여 적절히 활용해 보자.

장기공로자를 위한 생활입소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정리했다.



동계기간 휴양시설

운영 안내

구분	수련관	AI호텔&리조트	콘도
대상시설	대관령·경주	30개소 (AI호텔 8개소, 리조트 22개소)	금호·대명·오크밸리·한화
이용 기간	11.30(수) ~ 2.28(화)		신청일 기준 15일 이후, 120일 이내
정기 신청 일정	10.28(금) ~ 11.3(목)		상시
승인일	11.4(금)		상시
잔여 객실 오픈	11.11(금)~ / 수시오른 *후계기간 잔여객실 포함 수시 신청 가능		콘도는 미확보 시설로 신청 후 콘도사 상황에 따라 승인 결정

신청방법

- KATE → ERP → 복리후생 → 신청 → 휴양시설
- 모바일KATE → 마비서 → 휴양시설
 - 수련관, AI호텔&리조트, 콘도 선택 → '이용시기' 선택 후 조회 및 신청
 - 당해년도 미이용 직원은 신청사유 '당해년도 미이용' 선택 신청 시 우선순위 적용

선정 우선순위

- 생활입소 → 당해년도 미이용 → 저직급 → 저연령순

문의

- 수련관 & 콘도 & ERP 취소 등 : 1533-0254
- AI호텔 & 리조트 : 02-6150-0400

생활입소

이용시설 : 모든시설(수련관, AI호텔&리조트, 콘도)

이용지역 : 전 지역(제주 포함)

지원대상

- 장기공로 : 만 59세 도래 부장급 이하 직원
- 결혼기념 : 결혼 30/20/10주년 도래 부장급 이하 직원
* '19.02월 이후 대상자 중 코로나19로 인한 미이용자 포함

우선순위

장기공로 → 결혼기념 30주년 → 결혼기념 20주년 → 결혼기념 10주년

이용기간

- 생일(장기공로)/결혼기념일이 속한 월 1일부터 1년 이내(입소일자 기준)
예) 2022.4.15 결혼기념일인 경우 이용가능기간 : 2022.4.1 ~ 2023.3.31
1963.10.5 생일인 경우 이용가능기간 : 2022.10.1 ~ 2023.9.30
-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입소 미이용자는 입소일자 기준 '22년 말까지 이용 가능
(단, 정규직 퇴직 후 이용 시 복무 및 비용지원 불가, 현재 상무보, SC 지원 불가)
*승인 시 이용점수 및 이용박수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복무처리

- ERP → HR → 개인업무 → 복무/출장 → 출장 → '국내출장'에서 신청
 - 유형 : 휴양시설 생활입소
 - 기간 : 최대 2박 3일(휴일 무관하게 신청, 초과일은 개인 휴가 사용)

비용정산

- 최대 2박 3일 지원기준에 맞춰 금액 산출 후 본인이 지출 결의
- 생활입소 이용 후 '국내출장' 신청 건에서 비용정산 신청

구분	장기공로	결혼(30/20/10주년)	비고
일비	직원 포함 4인 이내 (직계존비속)	부부 2인	최대 3일(1일 13,000원)
교통비			왕복 교통비(타도시 한정) * 제주지역 교통비는 최대 서울-부산간 KTX일반실 운임 적용
식비			최대 5식(1식 7,000원) 단, 수련관은 식권 제공

예) 최대 2박 3일 : 일비 39,000원 x 인원, 교통비 x 인원, 식비 35,000원(식권) x 인원

- 계정 : 기타비급여성 복리후생비
- 코스트센터 : 소속기관 코스트센터

*모바일마비서에서 생활입소 복무처리/비용정산은 불가하며, ERP에서 처리 가능

휴양시설

Q. 숙박비는 무료인가요?

A. 무료입니다. 기타 부대시설 이용요금 등 상세내용은 시설안내서를 참고하세요.

Q. 휴양시설 잔여객실은 언제 확인이 가능한가요?

A. 정기배정 승인 완료 후 잔여 시설은 일괄 전사 오픈되며 (오픈일 전사공지 참고) 취소분 발생 시마다 오픈되오니, 수시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Q. 휴양시설 잔여객실 신청 후 승인여부는 언제 확인 가능한가요?

A. 잔여객실은 매일 23시에 시스템 승인되며, 익일 ERP 및 마비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익일 이용건은 신청일 16시 승인여부 시스템 승인됨)

Q. 휴양시설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먼저 신청한 건이 '신청 중'인 경우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며, 먼저 신청한 건이 '승인/불승인'인 경우에만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Q. 휴양시설 이용 대상 및 이용 가능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A. 휴양시설 이용 대상은 직원 및 가족이며, 부득이할 시 직원 또는 가족이 동반하는 경우 타인을 포함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수련관은 6명 이내 이용 가능하며 직계가족 입증 시에는 예외 적용됩니다. AI호텔&리조트/콘도는 시설별 자체 운영기준에 따릅니다.

Q. 이용박수 제한이 있나요?

A. 수련관 : 제한 없음 / AI호텔&리조트, 콘도 : 연 7박 이내입니다. 통합 7박(주중 0.5박, 주말 1박으로 산정)을 모두 이용하신 경우 콘도, 리조트/콘도 휴양시설 추가 신청은 불가하며, 수련관만 이용 가능합니다.

생활입소

Q. 장기근속 10, 20, 30주년은 생활입소 신청이 안 되나요?

A. 장기근속 기념은 '자기계발 출장' 적용 대상으로 생활입소 대상이 아닙니다. ('16년 안식년 휴가로 최초 대체)

Q. 주말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생활입소 출장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휴일과 무관하게 최대 2박 3일까지 신청 및 비용정산 가능합니다.

Q. 현재 상무보, SC인데 코로나19로 이용 못한 생활입소를 갈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22년 말까지 연장 처리해 드렸으니 시스템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정규직 퇴직 전 복지 혜택을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퇴직 후까지 특별 연장해 드린것으로, 일반 퇴직자와 동일하게 복무와 비용 지원은 불가합니다.

이용점수 및 취소

Q. 휴양시설 이용점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휴양시설 이용점수는 최근 3개년 이용실적을 반영합니다.

2022년	2021년	2020년
비수기 주중 : 1.0 비수기 주말 : 2.0 성수기 주중 : 2.5 성수기 주말 : 4.0	이용점수의 50%	이용점수의 20%

* 비수기 주중 6.1일(입소일 기준)부터 0.2점 → 1.0점으로 변경 적용

* 2022년 하계 성수기 기간 : 7.22 ~ 8.21

Q. 시스템 이용취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이용취소는 수련관/콘도는 전일, AI호텔&리조트 7일 전까지 가능하며, 패널티 점수는 A10의 휴양시설 이용점수에 해당하는 점수가 부여됩니다. 단, 취소가능기간 이후 취소가 필요한 경우 1533-0254로 연락해서서 취소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Q. 휴양시설 취소에 대한 패널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취소 시점에 따라 패널티 점수가 부여됩니다. (이용점수 x 적용 비율)

구분	정상 취소	패널티 적용	적용 비율
수련관/콘도	~4일 전	3일 ~ 2일전	20%
		1일전	30%
		당일	50%
AI호텔&리조트	~15일 전	14일 ~ 8일전	20%
		7일 ~ 1일전	30%
		당일	50%

Q. 휴양시설 취소 시 순위 및 이용실적 점수는 언제 갱신되나요?

A. 휴양시설 이용점수는 매일 16시 기준으로 갱신됩니다. 16시 이전 취소 시 당일 16시 갱신, 16시 이후 취소 시 익일 16시에 갱신됩니다.

Q. 휴양시설 승인 후 취소하지 못하고 개인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용점수 및 박수가 부여되나요?

A. 승인 후 연락 없이 노쇼(No-Show) 하시는 경우 정상 이용점수의 3배가 부여되며, 이용박수도 이용으로 처리됩니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 적용됩니다.

길 따라, 맛 따라 남도 한 바퀴

여수·통영

‘내 고향 남쪽 바다’를 노래하던 시인은 이제 세상에 없지만,
 남쪽 바다의 파란 물빛과 잔잔한 바다를
 날아다니는 물새는 지금도 여전하다.
 남쪽 바다의 아름다운 바다 도시는 언제라도 좋지만,
 쌀쌀해지는 가을날의 남도여행은
 첫사랑의 추억처럼 어딘지 애뜻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
 깊어가는 겨울밤, 남쪽 바다 항구 도시에서
 희한 접시와 소주 한 잔을 앞에 두고
 낭만과 청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자.

사진자료 / 한국관광공사



낭만버스 -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

시티투어에 연극 공연, 버스킹, 문화관광해설, 이벤트를 접목해 새로운 여행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며, 승객은 오픈탑 버스의 2층에서 공연과 여수 야경을 감상한다. 버스는 오후 7시 30분 이순신광장에서 출발해 국동여항단지, 여수시청, 소호동동다리, 돌산대교, 거북신대교 등 여수 주요 관광지를 모두 지나며 소호동동다리에서는 20~30분 동안 잠시 정차한다. 버스 운행시간은 총 2시간이다.

☎ **예약 : 여수시ok통합예약사이트 (ok.yeosu.go.kr)**
운영시간 : 매주 금, 토요일 19:30~21:30(2시간)



예울마루와 장도

여수 앞바다에 있는 317개의 섬 중 하나인 장도는 섬 전체가 하나의 미술관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장도는 본래 무인도였으나 1930년 초 사람들이 입도하면서 작은 마을이 형성됐다. 섬의 소박한 삶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2012년 사회공헌 프로젝트 복합문화예술공간 ‘예울마루’가 지어지면서부터다. 여수시가 장도를 매입하고 GS칼텍스가 섬 전체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한 뒤 무료로 공개했다. 30분 정도면 창작 스튜디오, 우물쉼터, 전망대와 장도전시관, 잔디광장 등 대표 경관을 둘러볼 수 있다.

☎ **전남 여수시 예울마루로 100**
예울마루 1544-7669(www.yeulmaru.org)
여수시청 문화관광과 061-659-3872



향일암

새해 일출을 보며 소원성취를 비는 곳으로 유명한 향일암은 아홉 번째로 큰 섬 ‘돌산도’에 자리했다. 일주문을 지나면 산 아래로 다도해가 시원하게 펼쳐지고, 동쪽을 향해 세워진 향일암에서 바라보는 일출은 송고함마저 느껴진다. 향일암은 4대 관음기도 도량 중 하나다. 관음성지란 ‘관세음보살님이 상주하는 성스러운 곳’이란 뜻으로 이곳에서 기도를 하면 부처님이 한 가지 소원을 반드시 들어준다고 한다.

☎ **전남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로 1**

전남지역 조합원이 추천하는

여수의 맛

진남식당



여수의 대표 먹거리 양념게장, 간장게장, 꽃게탕은 물론 갈치 조림이 맛있기로 유명해 일 년 내내 문전성시를 이룬다. 매일 신선한 재료를 고집해 손맛 좋은 사장님의 솜씨로 완성된 꽃게탕은 된장을 넣어 얼큰하면서도 담백해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또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을 비롯해 함께 곁들여진 12가지의 밑반찬 역시 인기가 높다. 명성답게 일 년 내내 손님들로 북적이지만 한 번 맛보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꼭 다시 찾게 돼 단골이 많다고 한다.

☎ **전남 여수시 통제영5길 10-6 1층**
061-641-6795

아구할미 서대대감

아귀찜과 서대회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 매콤하면서도 적당히 숙성된 막걸리 식초로 버무려 새콤함과 감칠맛의 균형이 적당하다. 또 김가루, 참기름을 넣고 서대회와 아귀찜을 비벼 먹으면 밥 한 그릇이 푹딱 사라진다. 서대는 가지미와 비슷하게 생긴 어류로 여수의 대표 어종이자 대표 별미다. 여수에서는 손님에게 꼭 대접하는 특별식이었는데 회무침, 찜, 조림, 튀김, 매운탕 등 다양하게 조리하지만, 막걸리로 발효시킨 식초와 각종 채소로 버무린 회무침을 최고로 친다.



☎ **전남 여수시 교동남2길 5**
061-684-3908



41번 포차

여수 출신 만화가 허영만의 맛집으로 소개된 적 있는 곳으로, 현지인에게도 인기가

높은 30년 전통의 노포다. 대표 메뉴로는 삼치회와 해물삼합, 장어구이 등이 있으며 날이 추워지면 삼치회를 찾는 이들이 많아진다. 본래 연등천 포장마차촌에 있다 지금의 봉산동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번듯한 식당이 됐지만 포차 번호였던 ‘41번’을 그대로 사용 중이다. 포차답게 영업도 새벽 3시까지다. 이곳은 선어회가 유명한데 선어회란 살아있는 상태에서 유통이 어려운 어종을 아예 손질해 판매하는 횡감으로 삼치, 참치, 민어, 방어 등이 대표적이다.

☎ **전남 여수시 봉산동 봉산남3길 17**
061-642-8820



돌산공원

‘여수 밤바다’를 보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여수 전경을 볼 수 있다. 특히 밤이면 50여 가지의 조명으로 빛나는 돌산대교가 한눈에 내려다보여 여수 밤바다의 낭만을 더욱 짙게 한다. 돌산대교는 여수시와 돌산도를 잇는 연륙교로 여수 밤바다의 상징이다. 공원 정상에는 여수해상케이블카 놀이정류장이 있는데 케이블카를 타지 않아도 일몰과 야경을 감상하기 좋다.

☎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99-76**



여수해양공원

여수 밤바다를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여수 구항의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1.5km의 산책로에는 하멜전시관과 종포해양공원이 포함돼 있다. 밤에도 산책하기 좋은 곳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SNS엔 ‘인증 사진’이 줄을 잇는다. 또한 여수낭만포차거리의 포차들에선 돌문어삼합을 비롯해 지역의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어 여수의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 **전남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188-1**



통영



미래사 편백나무 숲길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유명하지만 고즈넉한 숲길 산책도 놓칠 수 없다. 미륵산에 자리한 미래사 편백나무 숲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심어 가꾼 것을 해방 뒤 사찰에서 매입해 산책로를 꾸민 것이다. 하늘 위로 시원하게 뻗은 숲 사이로 난 오솔길을 걸으면 은은한 편백나무 향기가 몸과 마음을 한결 편안하게 해준다. 숲의 오솔길 끝을 돌아가면 돌연 등장하는 푸른 바다는 편백나무 숲이 숨겨놓은 풍경 중 하나다.

📍 **경남 통영시 산양읍 미륵산길 192**



이순신공원

이순신 장군의 3대 대첩 중 첫 번째 대승을 기록한 한산도대첩의 승리를 기념해 만든 공원으로 과거 한산대첩기념공원이라 불리다 이순신공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곳은 지역 주민도 자주 찾는 통영시의 대표 명소로 해변을 따라 길게 이어진 산책로에서 보이는 잔잔한 통영 앞바다와 산맥처럼 펼쳐진 섬들이 절경을 이룬다. 나무 데크로 이어진 산책로를 통해 해변으로도 나갈 수 있으며, 바닷가 바위엔 낚시하는 이들의 모습도 종종 눈에 띈다. 공원에는 산책로 외에 전망데크, 전통문화관, 잔디광장 등도 마련돼 있다.

📍 **경남 통영시 멘데해안길 205**



스카이라인루지

루지는 모든 세대가 즐겨 찾는 통영의 대표 관광 명소다. ‘루지’는 특별한 동력 장치 없이 특수 제작된 카트를 타고 경사진 트랙을 달리는 놀이시설로 총 2.1km 길이에 구불구불한 커브와 터널이 조성돼 있다. 최고지점과 최저지점의 높이는 약 100m로 다소 아찔해 보이지만 막상 루지를 타면 모든 연령대가 부담 없이 스피드를 즐기기에 적합하다. 2017년 국내 최초로 개장한 이곳은 5년 연속 대한민국 서비스만족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경남 통영시 발개로 178**
운영시간 : 오전 10시-오후 6시(연중무휴)



동피랑 벽화마을 & 서피랑마을

통영 중심 시가지 강구안 언덕에 위치한 동피랑은 원래 달동네였다. 2000년대 중후반 통영에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지역 주민들이 집 담장과 벽에 벽화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입소문으로 유명해졌다. SNS를 타고 벽화마을 사진이 퍼져나가면서 ‘동쪽 끝에 있는 높은 비탈’이란 뜻의 동피랑은 통영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관광 명소가 된 것이다. 통영시는 2년마다 바라거나 오래된 벽화를 교체하는데 올해가 여덟 번째다. 동피랑을 이미 봤다면 서피랑도 방문해 보자. 박경리 작가의 <김약국의 딸들>과 김춘수 시 ‘명정리’가 이 마을을 배경으로 한다. 또 백석 시인이 통영 처녀 ‘란’을 만날 며칠 기다렸다는 우물도 이곳에 있다.

- 📍 **동피랑 벽화마을 : 경남 통영시 동피랑1길 6-18**
- 📍 **서피랑마을 : 경남 통영시 서호동 8-2**



동네의 책방

동네 책방이 곳곳에 조용히 생겨나던 2014년 통영의 작은 골목길에도 서점이 문을 열었다. 처음엔 4평짜리 방 한 칸만 책방으로 꾸미고, 나머지는 북스테이로 운영했지만, 서점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전체가 서점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이후 작가와 독자 간의 교류가 이어지고 사진가, 일러스트레이터, 작가, 번역가 등 예술가들도 골목길에 터를 잡았다. 이후 책방 인근에는 카페들이 생기기 시작하며 골목 곳곳이 활기를 띠었다. 그럴싸한 볼거리, 체험 요소는 없지만, 통영에서 유유자적한 시간을 보내기에 좋다.

📍 **경남 통영시 봉수1길 6-1**

숙소 정보

신청방법 (홈페이지) KATE → EPR → 복리후생 → 신청 → 휴양시설 (모바일) KATE → 마비서 → 휴양시설		
여수 한화리조트 벨베르 전남 여수시 웅천남4로 17	여수베네치아호텔 전남 여수시 오동도로 61-13	금호통영마리나리조트 경남 통영시 큰밭개1길 33

경남지역 조합원이 추천하는

통영의 맛

대추나무



다짜는 정해진 안주가 아니라 가게 주인이 그날그날 만든 음식으로 차려주는 대로 먹는 술집 문화를 뜻한다. 통영의 다짜가 유명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다짜가 생겼지만, 과거 통영을 대표하던 다짜의 원형을 유지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한다. 상차림은 보통 횡집과 비슷하다. 먼저 문어숙회, 꼬막, 계장, 전복죽 등으로 시작해 각종 회가 차려진 후 갈치조림, 오징어통찜 등과 같은 요리와 식사가 이어진다. 현지인에게도 유명한 곳이라 예약은 필수다.

📍 **경남 통영시 항남1길 15-7**
 ☎ **055-641-3877**

명계가

통영은 우리나라 명계 공급량의 70% 이상을 공급하는 명계의 고장이다. 이름도 ‘우렁쉥이’가 표준말이지만 통영말 ‘명계’가 널리 사용되면서 명계도 표준어가 됐다. ‘명계비빔밥’이 유명세를 얻게 된 것 역시 통영이 시작이었다. 멸치젓을 거른 멸장과 다진 마늘, 깨로만 특유의 바다 향을 살려 무친 명계와 해초를 함께 비벼 먹으면 오독오독한 식감과 고소하면서도 싱그러운 바다내음이 입을 즐겁게 한다.

📍 **경남 통영시 동충4길 25**
 ☎ **055-644-7774**



부일식당

통영의 겨울은 ‘북국의 계절’로 통할 정도로 날이 추워지면 북국을 찾는 이들이 많아진다. 늦가을부터 살이 오르는 북어는 산란기가 시작되는 3월 이전 겨울이 가장 개운하고 시원한 맛을 낸다. 1978년 문을 연 노포로 북국집이 물려 있는 서호시장에서 유명한 집 중 하나다. 크기가 작은 북어를 통째로 넣어 끓여낸 통영의 북국의 진하고도 개운한 맛이 일품이다.

📍 **경남 통영시 서호시장길 45**
 ☎ **055-645-0842**

주요소식

부산·대구지방본부 현장순회



9월 5일(월) 최장복 위원장이 부산과 대구지역을 방문해 현장 조합원 간담회 및 격려 방문을 이어갔다. 이날 범일사옥, 동래사옥을 차례로 찾은 최장복 위원장은 “작은 변화가 큰 혁신의 물결이 되듯이 예전과 달리 많은 관심을 표출해 주신 오늘 간담회에서 느낀 바가 크다”며 “여러분이 고민과 생각을 적극적으로 나눠주신 덕에 조합원들과 현업의 상황을 한층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간담회에서 나온 많은 질의와 의견을 통해 단체교섭은 물론 노동조합 정책과 사업을 공고히 하는 데 사명감을 가지고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신입 조합원 특강 실시



9월 13일(화) 유통채널관리, BIZ 영업, ICT 인프라기술 분야의 신입 조합원 132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이 그룹인재개발실 연주원수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특강은 노동조합의 역할과 조직을 소개하고, 회사의 복지제도를 설명하는 기회가 됐다. 특강에 참석한 최장복 위원장은 “코로나19 재난이 계속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취업에 성공해 KT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은 입사와 동시에 40여 년의 역사를 가진 KT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었다”며 “우리 조합은 주니어 조합원의 권익 향상에도 주력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KT-NTT 노조 간담회 개최



10월 17일(월) KT 광화문 East 사옥에서 일본통신노동조합 NTT와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KT노동조합은 겐지 시바타 사무총장, 에리사사키 교섭정책 전문위원과 동아시아통신노동조합 포럼 일정을 협의했다. 이날 겐지 사무총장은 “동아시아 통신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과도한 규제 및 노동자 경영 참여를 위한 공동 대응과 연대가 시급하다”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연됐던 포럼 재개를 위해 운영방식과 일정을 다시 조율하자”고 제안했다. 동아시아 포럼은 동아시아 통신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3년 결성된 조직으로, 각국의 산업적 구조와 조직, 전반적 노동운동 상황 등을 주제로 적극적인 교류와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 조문



10월 31일(월) 최장복 위원장은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를 찾아 고인들의 넋을 기렸다. 이날 최장복 위원장은 “살아갈 목적이자 동력이었을 자식을 마지막 인사조차 나누지 못하고 떠나보낸 유가족의 심정을 헤아릴 길이 없다”며 “슬프고 무력한 마음으로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참사에 유명을 달리한 본사지방본부 소속 조합원을 애도하며 “미처 다 피어보지 못한 짧은 생이 못내 애통하고 참담하다”며 “다시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그곳에서 못다 한 꿈과 바람을 이루기를 바란다”며 유가족을 위로했다.

 **2022년 상반기
회계감사 결산**

9월 2일(금) 중앙본부 대회의실에서 2022년 회계연도 상반기 회계감사 총평을 열고 상반기 결산을 확인했다.

 **장기 입원 조합원에게
위로금 전달**

한가위를 맞아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장기 입원 중인 조합원 14명에게 위로금을 전달했다.

 **3분기
희망퇴직 신청자 접수**

9월 6일(화)부터 9월 14일(수)까지 정년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 받았다.

 **강원지역
조합원 간담회 진행**

9월 13일(화) 최장복 위원장은 강북지방본부 산하 춘천, 원주사옥을 차례로 방문해 강원지역 조합원들과 현안을 공유했다.

 **2022년
추계 체육행사 시행**

10월 4일(화)부터 10월 31일(월)까지 하나된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추계 체육행사를 시행했다.

 **임금인상 소급분 및
경영성과 격려금 지급**

2022년도 단체교섭 결과에 따라 임금인상 소급분 및 경영성과 격려금을 11월 30일(수) 지급했다.

복지

2023년 초·중·고 자녀 인터넷 강의 교육프로그램 신청 안내

신청대상 | 초중고 학생 자녀를 둔 전 직원(자녀 수 제한없음)

신청방법 | 조사원 응답

신청기간 | 2022년 11월 23일(수) ~ 12월 2일(금)

지원기준 | 자녀 1인당 1개 프로그램 신청(신청자 전원 지원)

지원금액 | 최소 20만원 ~ 최대 전액

문의사항 | ktwelfare@kt.com(이메일 문의)

교육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교육 내용	교육 기간
초등	KT홈스쿨 X 홈런	초등 아이스크림 홈런 전 과정 자유수강 (안드로이드 태블릿 본인 준비)	1년
	온리원(구 수박씨, 컴) (PC)	엠베스트(태블릿)	1년
중등 (택1)	엠베스트(PC)	중등 전 과정 자유수강	1년
	엠베스트(태블릿)	초·중등 전 과정 자유수강 (태블릿 포함)	1년
고등 (택1)	대성 In Live	대성학원 고3 수능대비 Live 강의 (개별 수강신청, 강좌3/교재 3권 포함)	7월~11월
	대성 마이맥	대성올패스 전 과정 자유수강 (교재쿠폰 7권, 무료배송 쿠폰 포함)	1년
	메가스터디	메가패스 전 과정 자유수강	1년
	대학 입시상담	메가스터디 대입 컨설팅	-



2022년 9월 성과급 지급

2022년 9월 성과급이 상반기 부문/담당 KPI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9월 7일(수) 일괄 지급 완료했다.



2022년 2차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행

법정사유로 긴급자금이 필요한 조합원을 위해 2022년 2차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시행했다.



4분기 시니어 컨설턴트 선발

정년퇴직하는 조합원의 숙련된 기량을 지속 활용하기 위해, 직무 전문성이 높은 정년퇴직(예정)자를 재고용하는 제도로, 9월 22일(목)부터 28일(수)까지 지원을 받았다.



3분기 노사협의회 결과 이행

2022년 3분기 노사협의회 결과에 따라 분당사옥 2층에 VR을 활용한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마련하였으며, 휴게시설 환경 조성이 필요한 사업장은 9월부터 보완 및 개선 작업을 시작했다.



연금저축 금융기관 및 상품변경 시행 안내

2022년 하반기 연금저축 금융기관 간 계좌 이동, 금융기관 내 상품변경을 시행했다.

조합원의

삶을

들려주세요.

노보 편집실에서는 열정적인 취미활동, 헌신적인 봉사활동 등으로 일과 삶을 풍요롭게 꾸미는 조합원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지면에 실고자합니다. 또, 정년 퇴임한 선배나 오지에서 근무하는 조합원 등 동료들과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는 조합원을 만나 이야기를 듣습니다. 본인 추천, 동료 추천 모두 좋습니다. 부담 없이 편집실의 문을 노크해주세요.

코너명 삶이 있는 풍경

내용 추천 내용을 검토해 해당 조합원을 인터뷰 후 **KT노보 <터>**에 게재 보내는 방법 추천 사유를 간략히 적어 메일로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실 곳 **mabin@kt.com**(김민수 편집국장)

조합원과 함께 이룬 결실 더 크게 누리고 가꿔가요!

2022년도 단체교섭
2022. 11. 14. 주식회사 케이티 · kt노동조합

인사와 보수, 복지 분야에서 큰 진전이 이루어 졌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9월에 시작된 단체교섭이 3개월의 지난한 협상과 노동조합의 끈질긴 노력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우선,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특별승진>의 시행으로 대상자에게 동기부여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은 일반 직원과 분리해 별도 그룹으로 승진심사를 실시합니다.

※ 승진규모는 당해 연도 신규 임금피크제 적용 인원수에 비례하여 산정 (50%수준)

아주 사기가 팍팍 오릅니다!!!

<초과근무수당 감액 기준 개선>으로 휴식권 보장과 함께 감액 부담을 덜었어요.

네! 연차휴가를 매일 2일씩 연중 균등 분산해서 사용하면 초과근무 수당이 보전됩니다!

PC-OFF 제도 시행!

구분	현재	개선
매월	연차휴가일수만큼 차감	월 2일까지 초과근무수당 미차감
하계기간 (7-8월)		추가 3일 ^{7-8월} 합산 초과근무수당 미차감

와! 연차휴가 사용이 훨씬 편리해졌네요! 그 외에 또 다른 변화 있나요?

있죠!! <월 1회 금요일 휴무제>가 도입됐습니다!

와~ 그럼 금, 토, 일 3일 연속 쉴 수 있겠네요?

네!

총량자율근무제를 통해 4주 총 소정근로시간(160시간)은 유지하되, 금요일 휴무일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다른 일자로 조정하는 걸로 가능합니다.

복지 분야도 아주 풍성한 혜택이 추가 되었다죠?

네, 우선 치솟는 금리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고자 <금융기관 대부이자 지원>이 확대되었는데요,

기존 지원규모를 연간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사택제도 개선>으로 원하는 취향과 환경에 따라 살 곳을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보조비 지원(3년간 광역시/수도권 시지역 월 50만원 한도, 그 외 지역 월 30만원 한도)

우리회사 주식도 원하면 언제든지 취득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신청** **주식 배저**

우리사주 취득에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글로벌 연수프로그램도 재개> 된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2020년과 같은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을 확보해 직원들에게 리프레시와 역량 향상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어요!

와 정말 많은 성과가 있었네요!

덕분에 내년에는 더 신나게 일하게 되었어요. 노동조합과 함께하는 즐거운 회사생활, 화이팅입니다!

2023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은 더 좋은 소식을 만드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터>를 읽은 느낌과 생각을 퀴즈 정답과 함께 메일로 보내주세요.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강북/강원광역본부 동부고객본부 동부OSP담당 OSP운영부 OSP품질개선팀 박성호

한 번 읽어 보라고 주변에서 전해주었던 노동조합 소식을 바쁘다는 핑계로 대충 보고 덮어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단체교섭 소식이 궁금해 책을 펼쳤더니 소통을 위해 힘쓰는 노동조합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행여지도'나 'ICT리포트'가 인상 깊었습니다.

충남/충북고객본부 천안지사 전략상권부 전략상권2팀 성은숙

소식지를 만드는 분들의 수고와 고민이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건강 정보를 비롯해 KT의 진로, 방향성에 대한 내용도 많이 다뤄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퇴직사우들이 근황도 간혹 실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강북/강원NW운영본부 서울강북엑세스운영센터 총청엔지니어링부 품질분석팀 김중완

조합원 간담회 및 단체교섭을 준비하는 소식에 공감하고 휴대폰 증폭으로 인한 안구건조증 대처법 등 알찬 정보를 얻었습니다. 우영우 변호사 신드롬을 일으킨 국내 OTT 시장 지각변동 소식이 특히 좋았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노동조합의 소식을 들려주세요!

충남/충북고객본부 OSP담당 OSP지원부 OSP지원3팀 박명현

위원장님의 조합원 간담회 및 단체 교섭을 응원하며, KT 노동문화계 활성화에 대한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여행 칼럼에서 명소와 맛집 소개도 좋았고요, '보이는 만큼 건강하다'는 건강 상식도 눈에 띄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상식 공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남고객본부 강남지사 CS부 CM1팀 김석기

단체교섭 과정과 다양한 조합원 의견 수렴이 상세하게 나와서 좋았습니다. 여행정보와 맛집 소개도 유용했습니다.

부산/경남고객본부 동부산지사 영업기획팀 고객careTF 박경희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에 살고 있지만, 모르고 있던 장소와 맛집 소개에 반가운 마음이 절로 들었어요. 업무 외적으로 감성을 나눌 수 있는 소식도 많이 다뤄주시길 바랍니다.

전남/전북고객본부 OSP담당 OSP지원부 OSP지원1팀 문정기

시간을 내서 소식지를 읽다 여행 정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침 10월 부산 여행계획이 있었는데 맛집을 소개해줘 뜻하지 않게 여행계획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신사업 SCM담당 SCM전략실 Open Innovation팀 배지수

노동조합 활동에 관심을 갖고 챙겨보려고 합니다. 소식지의 내용이 알차고 다양한 소식을 접할수 있어서 좋습니다.

엔터프라이즈부문 기업고객본부 기업고객3담당 기업금융고객2팀 이준우

금번 소식지를 통하여, 노동조합 관련 여러가지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2년 단체교섭 준비과정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 여행지 강릉에 이어, 부산의 여러 관광지 내용도 유익했습니다. 부산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른 블루라인파크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우영우 변호사 신드롬을 분석한 OTT시장의 분석기사도 잘 보았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KT그룹이 OTT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강남/서부광역본부 서부고객본부 구로지사 관악지점 CM1팀 오창돈

청년국장님을 중심으로 KT의 미래가 활짝 열릴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청년이여 무궁무진한 세계를 향하여 영원하라!!!! 소식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더욱 나날이 발전하는 소식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KTTU 초성 QUIZ

네모 칸 속 초성과 힌트를 읽고 낱말을 완성해 보세요.

정답과 함께 소식지 [터]를 읽고난 소감을 메일로 함께 보내주시면 선별하여 **문화상품권(2만 원)**을 보내드립니다.
[예 : 노동조합 → 노동조합]

보내실 곳 : mabin@kt.com (김민수 편집국장)

ㄱ ○ ○ ○ ○

2022년도 단체교섭의 성과로, 4주 총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되 금요 휴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다른 일자로 조정해 월 1회 금요일에 쉴 수 있도록 한 제도. 조합원의 휴식권 확대가 기대된다.
(6페이지 참고)

○ ○ ○ ○ ○

1886년 미국의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 시행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인 날로 전세계 여러나라에서 노동자 권리의 상징으로 기념해 오고 있다. (11페이지 참고)

○ ○ ○ ○ ○

과도한 음식섭취로 소모되지 않은 칼로리가 간과 장에 흡수돼 생기는 지방.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인데 이 수치만 높다면 젊은 나이에도 관상동맥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건강검진시 수치를 유의해서 봐야 한다.
(22페이지 참고)

KT 임직원 감사 답례품 (기프티쇼) 할인 안내

최대할인
10%

임직원님의 애경사를 같이 해주신 분께 답례 시,
조금이나마 편익을 드리고자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쇼)을 할인해 드립니다.

★ 이용 방법 및 절차

- 다운플랜 홈페이지 (daonplan.com) > 소식 > 회사소식에 공지 확인
- 첨부엑셀 양식 기입 후 다운플랜 이메일로 전송 (메일 : daonplan1555@naver.com)

★ 할인 안내 (판매가 금액 합계)

금액대 구간	할인율
30만 원 이상 ~ 100만 원 미만	3%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5%
2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7%
400만 원 이상	10%

발신번호 별로 할인을 책정하며, 할인율은 상품 판매가 합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최초 구매 시 상품 판매가 합계 기준 최소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최초 구매 후 추가구매는 7영업일 내에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최초 구매 시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ex) 최초 구매 100만 원 : 5% 할인 적용

→ 추가구매 20만 원 : 5% 할인 적용

추가구매로 인한 누적금액의 합산 할인을 적용은 불가합니다.

ex) 최초 구매 50만 원 : 3% 할인 적용 / 추가구매 150만 원 : 5% 할인 적용

→ 최초 구매 50만 원에 대해 추가 2% 할인 적용 불가

★ 할인 예시

브랜드	상품명	판매가격(원)	수량(개)	소계	비고
스타벅스	아이스 카페 아메리카노 Tall	4,100원	100	41만 원	커피 1잔
스타벅스	부드러운 디저트 세트	12,700원	100	127만 원	커피 2잔, 조각 케이크 17개
베스킨 라빈스	마음을 드려요	26,000원	30	78만 원	아이스크림 케이크
판매가 합계					246만 원

→ 7%할인 (172,200원)된 금액 2,287,800원을 입금

★ 유의 사항

- 해당 기프티쇼는 B2B 프로모션 선물용으로 유효기간은 60일이고 연장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 해당 기프티쇼는 유효기간 도래 전 안내문자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KT멤버십 중복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선물용이기에 본인 사용용도로 구매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선택 가능한 상품은 물품교환형입니다.
 - 부득이 금액형 또는 상품권 등 일부 상품 선택 시 할인 미적용 및 판매가 합계 시에도 산정 제외
- 신청 시간(영업일 09:00~17:00) 이후 신청 시 익영업일 발송됩니다.

문의 다운플랜 1577-1555 (ARS 3번)

아플 때  힘이 되는

가족사랑 헬스케어 서비스

· 헬스케어서비스란? 일상생활에서의 건강관리부터 질병 발병 후 치료 지원의 단계를 면밀히 관리해 드리는 서비스

 헬스 콜 서비스 1577-1555 → 4번



- 지원 대상 다운플랜 회원과 직계가족
- 이용 시간 24시간 365일

일상 케어 +

- 건강상담
- 병원 및 명의 안내
- 검진 상담 및 우대 예약
(KT 복지제도에서 검진 지원되는 분은 제외)



질환 케어 +

- 상급종합병원 진료 예약
- 간호사 진료 동행
- 차량 에스코트



※ 가족사랑 헬스케어서비스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다운 헬스케어 콜센터 (☎1577-1555 → 4)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콜센터
☎ 1577-1555 → 4



모바일 앱
[KT다운헬스케어]



서비스 이용